

# 첫 협상판 깬 미국·이란 주중 대면여부 '촉각'

### 트럼프, 이틀내 협상재개 가능성...핵·호르무즈 절충 관건 호르무즈 '맛볼 봉쇄' 대치 속 남은 1주일이 중대 '분수령'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2주 중 14일(현지시간)로 절반이 지났다. 미국의 대이란 맛볼 해상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치솟은 와중에 파키스탄에서 결렬된 회담의 주중 재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어 남은 1주일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및 종전협상 개시를 전격 발표한 것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 7일 저녁이다. 21일 2주 휴전이 끝나는 것으로, 이날까지 하면 딱 절반이 지났다.

그 사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고위급 첫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

상 봉쇄의 승부수를 던지며 압박 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휴전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틀 내로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AP통신 등 외신에도 따르면 16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문제는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더라도 양측이 얼마만큼씩 양보할 의사가 있는가다.

미국은 이란의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최우선 관심사로 삼고 있다.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고 우라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맥도날드 배달을 마친 배달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늄 농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포기를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지만 이란에서는 어떤 면에선 핵프로그램 유지가 레드라인이다.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

라늄 농축권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이란의 목표다. 미 언론에서는 우라늄 농축 중단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으로 미국 측이 20년을 제안했고 이란은 3~5년으로 맞섰다고 보

도하고 있다. 이란은 비축 고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저농도로 희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호르무즈 통행 제한적 회복 하루동안 20여척 이상 통과

14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당국자 2명을 인용,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맞서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은 선박에 대한 이른바 '역봉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허용하고 있다.

통과 선박에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군함을 투입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타난 변화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기뢰 위협으로 위축됐던 선박 운항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규모는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연합뉴스

### 'EU, 이스라엘과 협력협정 전면 중단해야' 유럽인 100만명 '팔레스타인 정의 위한 유럽시민 발의' 참여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의 협력협정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서명했다고 벨기에 언론 브뤼셀타임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유럽시민 발의'(ECI)라는 이름의 이 청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 등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권 침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한다며 이스라엘을 제재하라고 EU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작됐다. 시민 청원에 100만명이 참여함에 따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스라엘과 양자 협력 협정을 중단할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청원에는 회원국 10곳에서 기준

치를 충족해 EU 규정상 최소 조건인 7개국을 넘겼다. 유럽외교연합(ELA)이 주도한 이번 청원에는 시민사회 단체와 팔레스타인인이 주도하는 사회 운동, EU 전역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계속되면서 EU가 이스라엘과 협정 전면 중단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

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LA 공동의장 카타리나 마르틴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살하고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고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정치범에게만 적용되는 사형법까지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EU는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보상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